

2024-04-22 (2024-17호)

04월 22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쏠림 진정에도 확인해야할 달러와 엔

서울, 4월2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중동 사태 전개 양상과 글로벌 달러 방향을 쫓으며 등락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60-1,390원이다.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맞물린 중동 불안 확산으로 원화가 약세 압력을 유독 키우자 외환당국은 한미일 공조 형태로 시장 경고에 나서면서 효과를 극대화했다.

일부에서는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추정하지만, 원화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일본과의 공동 개입에 이어 과도한 시장 반응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뒷받침된 점이 시장쏠림을 막아선데 주요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이번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현재 엔화와 원화의 움직임이 펀더멘털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원화의 움직임과 관련해 "중동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달렸다"라며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주 달러/원 환율은 중동 전개 상황을 살피며 달러/원에 대한 단기 고점 인식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재보복으로 중동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지만 분쟁 확산 우려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당분간 중동 관련 뉴스 헤드라인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는 열어둬야할 듯하다.

연내 미국 금리 인하 기대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분간 주요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달러와 금리의 방향성은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발표 대기중인 미국 주요 경제지표는 4월 마켓 PMI(잠정치), 1분기 GDP(속보치), 3월 PCE 물가 등이다.

한편, 일본은행(BOJ) 정책회의도 큰 관심이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달러/엔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지 만, 34년 만의 최고치로 고공행진했던 달러/엔 반응은 금주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원화가 엔과 그간 비슷한 행보를 보여온 만큼 BOJ 회의 결과를 전후해 원화의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도 있겠다.

외국인 배당 시즌에 따른 수급 경계감은 지난 주보다는 완화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금주 외인 배당 묶은 약 8천억원 규모다.

아울러 미국의 주요 기술 및 성장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주가 반응도 핵심 변수다. 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 증시의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챙겨야 할 경제지표로는 20일자 수출입 잠정치, 3월 생산자물가지수와 1분기 GDP(속보치) 등이 있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5대 이슈

### ⊙ 엔 약세 선긋기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개입하지 않고도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길 바란다.

재무상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례 없는 3자 대화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우려'는 G7 성명에도 영향을 미쳐,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과도한 환율 변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개입은 통화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환영할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했고,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느릴 것임을 신호했는데, 25일부터 열리는 정책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이 확인될 수 있다.

### ⊙ 고전하는 아시아 통화

지난 2년 중 대부분의 기간 아시아 통화는 끊임없는 달러 강세로 타격을 받아왔고,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4년 만에 최저치, 원화 가치는 1년여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고, 인도 루피아와 베트남 동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는 고금리에도 동요하지 않아 신흥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아시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약한 성장세는 정책결정권자들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통화 가치가 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3~24일 정책회의를 개최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인도네시아의 금리 인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유가가 14%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의 4월 기업 활동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되면 특히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재개되고 있다는 신호 여부에 눈이 쏠릴 것이다.

3월 미국 PMI에서 기업 투입물가지수는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3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2.4%로 둔화됐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와 중동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유로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PMI는 한편 유로존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3월 PMI는 5월 이후 처음으로 활동이 확장됐음을 보여준 바 있다.

⊙ 대형 기술업체 실적

미국 증시 랠리가 흔들리고 미국 금리가 올해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대형 기술 및 성장주들의 실적,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23일에는 테슬라, 24일에는 메타,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된다.

투자자들은 또한 26일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통해 물가 상황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3월 중 PCE 물가지수가 0.3%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 유럽 은행 실적

유럽 은행 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2% 상승하며 마침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

2023년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확대로 큰 이익을 얻었다.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분기 실적 보고에서 6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가 은행들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줄 것인지 가늠해볼 것이다.

이번 주 BNP파리바, 도이치은행, 바클레이즈 등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한다.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22일(일)

- ⊙ 관세청: 4월 1일~4월 2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사회이동성 현장방문 (14:30)
- ⊙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IMF-WBG 춘계회의 참석 (16~23일)

4월23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12:00)
- ⊙ 한국은행: 2024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4월24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경보모형 (12:00)
- ⊙ 통계청: 2024년 2월 인구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사회이동성 현장방문 (14:00)

4월25일(목)

- ⊙ 한국은행: 2024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08:00)
- ⊙ 금융감독원: 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2차) (09:5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10:30)
- ⊙ KDI: KDI, '코리안 미래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13:30)
- ⊙ 기획재정부: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15:00)
- ⊙ 한국은행: 2024년 5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17:00)
- ⊙ 기획재정부: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17:00)

4월26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09:00)
-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12:0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21일 (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예일대서 강연 (23일 오전 0시30분)

4월24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25일 오전 2시30분)

4월25일 (목)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개최 (26일까지)
- ⊙ 휴장국가: 호주, 뉴질랜드 등

4월26일 (금)

- ⊙ 일본은행 통화정책 결정 발표
- ⊙ 루이스 데 퀴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아카데미아 유로페아 리더십 주최 행사서 연설 (오후 5시)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인터뷰) - 韓 통화정책, 연준 금리 정책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일 수 있게 돼 - 이창용 총재

서울, 4월20일 (로이터) 하워드 슈나이더·김주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한국의 통화정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연준 정책으로부터는 독립적일 수 없다는 자신의 이전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은 연속적인 금리인상의 시기라기보다 금리인하의 시점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다"라며 "연준의 금리결정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때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준 정책이 원화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만큼 한국 통화당국이 독립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여지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이번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 엔화와 원화의 움직임이 펀더멘털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 인하 기대의 후퇴가 이머징 마켓 등에서 이같은 과도한 환율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원화의 움직임과 관련해 이 총재는 "중동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달렸다"라며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구 동학 때문에 한국의 중립금리는 하락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반면에 글로벌 중립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이 총재는 "1분기 소비가 예상보다 둔화됐지만 2.1% 성장을 달성할 정도에는 부합한다"라며 "수출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워싱턴에 오기 전까지는 2월에 밝혔던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조금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보니 무역 등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향후 금리인하 시그널을 줄지는 소비자물가 숫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금리인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소비자물가가 우리의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몇 달동안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내려가는 데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학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들의 2% 물가 목표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학문적으로 관련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의 신뢰성도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 (단독) - 연준 콜린스,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

뉴욕, 4월15일 (로이터) -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콜린스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수요 둔화가 시작되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후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스는 3월 연준 회의에 자신이 제출한 분기별 전망치를 언급하며 중앙은행이 단행할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 "두 차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3월과 작년 12월에 발표된 정책결정권자들의 예상치 중간값은 2024년에 총 75bp의 세 차례 인하로, 콜린스는 2월 시리우스XM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기본 예상과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고 시끄럽고 많은 불확실성"이 많다고 콜린스는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수정 구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첫 韓·美·日 재무장관 회의, 향후 외환시장 공동 대응 단초 - 기재부 관계자

서울, 4월18일 (로이터) -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회의에서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긴밀한 협의 의사가 표명됨에 따라 향후 3국의 외환시장 대응 공조 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외환시장에 대한 긴밀한 협의, 환율 절하와 관련한 언급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한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펀더멘털과 괴리돼 절하된 엔화, 원화에 대해 3국이 인식을 같이 한 게 확인됐다"면서 "한일에 이어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G7회의에서도 환율 변동성을 우려하는 등 이 같은 논의를 촉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피할 수 없는 추세지만 세 국가가 공통으로 느끼는 강달러에 대한 부담을 공유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공동선언문에 외환시장 진전 상황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가 향후 3국이 금융시장 불안에 공동 대응할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 성명이 환율 변동에 대한 일본 입장을 바탕으로 환율과 관련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3국의 공동 대응에 이날 달러/원 환율은 한때 1371원선까지 떨어져 전일 대비 약 15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박예나·문윤아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오는 19일 외환시장 연장 5회 차 시범운영... 중개사 모두 참여해 FX스왑거래 중점

서울, 4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외환당국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하반기 외환시장 구조 개선 공식시행을 앞두고 오는 19일 5회 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당국이 인가한 FX스왑 중개사 9곳이 모두 참여해 FX스왑거래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물론 참여 기관 간 달러/원 현물환 자율거래는 지속된다.

한 시장관계자는 "이번에는 중개사 9곳이 다 들어오는데 스왑거래 준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스팟넥 형식 FX스왑거래를 한국자금융중개와 서울외국환중개사 2곳을 통해 시나리오방식으로 테스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탐넥 형식으로 자정 이전에는 CLS 방식, 이후에는 NON CLS 결제 방식 거래로 테스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는 경남은행과 수협은행 및 미래에셋증권이 새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외국환업 무취급기관(RFI)참여 확대는 아직 미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RFI로 등록된 기관은 최근 DBS와 하나은행 싱가포르지점이 추가돼 총 17곳이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IMF: 엔 약세, 금리 차이 반영한 것... 환율 변동성, 韓 경제에 큰 도전 아냐

워싱턴, 4월19일 (로이터) -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이 "상당히 큰 폭"이긴 하지만 대체로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를 반영한 것이며, 이는 엔화의 움직임이 경제 펀더멘털과 대체로 일치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 국장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일본 당국은 환율이 충격 흡수 역할을 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대외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연한 환율 체제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 7개국(G7) 역시 17일에 발표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성명에서 시장 결정 환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달러 대비 약 9% 절하되었는데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하고, 최근 엔화 움직임이 일본의 개입을 정당화하느냐는 질문에 "역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는 금리 차이를 반영한 것이지만,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편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변동성이 경제에 큰 도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홍콩,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상하이, 4월15일 (로이터) -

홍콩 증권 규제 당국은 15일 아시아 최초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보세라 자산운용 홍콩 법인과 차이나 자산운용은 개별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ETF 출시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